

사회

# 도교육청 비리 교육감 석방 탄원 논란

## 구속 하룻만에 직원 대상 홈페이지 서명 운동

### 논란일자 삭제... 12개 시민단체 계속 서명

전남도교육청이 장만채 교육감의 구속 하루 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석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비위혐의를 인정해 구속한 교육감에 대한 석방운동을 공공기관인 교육청 직원에서 펼치는 것은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유·무죄 여부를 떠나 교육정책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한 교육책"이라는 반응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ne.go.kr) 공지사항란에 '교육감 석방 탄원서'양식을 게재하고 직원, 교사, 도민 등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서명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부교육감 주재의 간부회의

에서 탄원서를 받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앞으로 된 탄원서에서 "교육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신성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도교육청은 26일 당일에만 2000여 명의 탄원서를 받았으며, 장 교육감이 30일째 구속적부심을 내는 때에 맞춰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탄원서 작성이

공공기관의 처신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27일 탄원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전남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만채 교육감·전남교육자키기법도민공동대책위원회'는 계속 탄원서명을 받고 있다.

한 고교 교사는 "교육수장의 구속으로 전남도교육청 직원들이 자숙해야 할 때에도 석방 탄원운동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의 한 간부는 "전남교육에 큰 혼란과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수방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법적인 최종 판단에 앞서 전남교육을 살리기 위한 바람 때문에 탄원서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만채 교육감에 적용된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공방도 예상된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교육감 취임 이후 의사인 고교 동창 두 명의 신용카드 총 6000만 원을 사용한 뒤, 그 대가로 부당 인사개입을 했다"며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에는 산학협력체로부터 사업 권의를 봐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 교육감은 그러나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외압이나 금품이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며 친구들이 대가없이 건네준 돈을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총장의 권한권 밖인 산학협력 업체로부터 40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감히 선배를 이겨?

## 싸움시킨 후배가 이기자 집단 폭행

### 서부경찰, 4명 검거

"감히 선배를 이겨?" 평소 미운 털이 박힌 중학생 후배에게 고등학생과 싸움을 시킨 후 후배가 이기자 집단으로 폭행한 고교생 4명이 경찰이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이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광주 2교 고교 정모(17)군 등 4명은 지난 2일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배인 중학교 3학년 이모(16)군 등 4명을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후배인

이군이 평소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려낸 뒤 또 다른 고교생 김모(17)군과 싸움을 시키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싸우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정군 등은 이군이 싸움에서 이기자 "바릇없이 선배에게 이겼다"며 이군과 친구 등을 때려 한 중학생은 고막이 파열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군 등은 경찰에서 "나이가 어린 이군이 평소 인사도 잘 하지 않고, 바릇없이 굴어서 흔해죽고 싶은 마음에 싸움을 시켰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학생 부모의 신고로 이들을 붙잡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서해안고속도로 표지판 받아 2명 사망·1명 다쳐

지난 27일 오후 5시24분께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함평천지 휴게소 부근에서 광주 방향으로 가던 그랜저 승용차가 휴게소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자 2명이 숨지고 50대 남자가 크게 다쳐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 중이다.

또 29일 새벽 0시43분께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장흥 조문터널에서 목포방향으로 달리던 코란도와 카니발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코란도 운전자 문모(26)씨와 어머니 정모(여·53)씨가 부상을 입어 인근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씨 등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 자살·왕따카페 28건 시정 요구

### 방송통신심의위

청소년들의 자살과 왕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인터넷 상의 자살·따돌림 관련 글도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자살 조장글 10건과 왕따카페 18건에 대해 이용금지 등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감전사, 과다 출혈사, 일산화탄소 중독사, 과다 등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게시물이나 '죽고 싶다. 혼자 가기에는 너무 무서워요. 쪽지

주세요' 등 동만자살할 사람을 구하는 글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는 또 특정인을 따돌림 목적으로 만들어 저주·비하 등 과도한 표현을 쓴 '왕따카페'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이용금지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위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와 자살예방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에서 자살상담을 원하는 글 29건 등 총 39건의 게시물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하게 하는 등 자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시간강사 이름 도용 연구비 착복 조선대 교수에 벌금 700만원 선고

대학원생인 시간 강사 등의 이름을 도용해 연구비를 착복한 교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장재용 판사는 연구 용역비를 착복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선대 김모(58) 교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학 교수로서 남다른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했던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는 함평천 하천정비공사 모니터링 연구와 광주지법 감정 업무, 정을 생태하천 모니터링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이름을 도용해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78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 목포서 신생아 유기 경찰, 수사 나서

29일 낮 12시께 목포시 용당동 모오피스텔 복도에 남아 신생아가 버려져 있는 것을 주민 한모(31)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한씨는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 나가 보니 문 앞에 신생아가 보자기에 쌓

여 있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신생아 옆에는 분유와 기저귀 등이 담겨 있는 가방이 있었으나 신생아의 신원과 관련된 물건은 없었다.

경찰은 신생아를 영아일시보호소에 보호하고, 오피스텔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산모의 행방을 찾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깨끗한 지구를..." 시민법인 '국제위러브유' 운동본부 광주지역 회원 500여명이 29일 오전 광주시 남구 광주고 인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클린월드운동의 일환으로 정화활동을 벌인 후 환호하고 있다. 클린월드운동은 2001년 출범한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펼치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활동으로 물과 공기, 지역을 깨끗하게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캠페인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초등생 놀이기구에 끼여 중태

## 광주서... 휴대전화 줍다 기구 작동 사고

광주의 한 실내 놀이시설에서 광주 모 초등학교 학생 A(11)양이 회전식 놀이기구인 일명 '도라도라'(사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

지난 28일 오후 5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N게입랜드에서 A양이 놀이기구에서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가 작동되는 바람에 목이 기구 문에 끼여 질식, 출동한 119구급

대에 의해 인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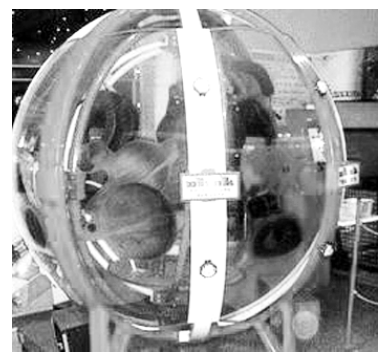
경찰은 A양이 이날 친구 2명과 함께 이 놀이시설을 찾아 360도 회전하는 원통형 놀이기구에 탑승했다가 내리던 중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전화를 줍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놀이기구를 작동하는 아르바이트생 이모(18)군이 몸을 넣고

는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채 무심코 놀이기구를 작동한 것으로 추정,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게입랜드 점장 박모(45)씨와 안전관리원 정모(28)씨를 상대로 놀이기구 작동 여부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광주시 동구 내 유일한 실내 놀이



시설인 이 업소는 지난 2011년 11월 유원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2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안전점검과 최근 시·구 합동점검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A양의 회복 여부에 따라 점장과 종업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사건번호	매각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2011타경 8492	1	진도군 의신면 황계리 551 612㎡	3,67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1타경 8652	4	해남군 마산면 동전리 918-6 408㎡	6,93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3	1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1041-5 877㎡	7,89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570	1	완도군 완도읍 죽천리 902-1 1442㎡ [경명 일지본2분의1지분전부]	8,65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분묘소재함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2012타경 655	1	진도군 지산면 길리리 462-2 171㎡ 동소 462-2 643㎡	창고	27,841,800	27,841,800	일괄매각 창고용지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거래가격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될 때 발생하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2. 5. 14.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2. 5. 21.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회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 [100만원]에 해당하는 공표기간 말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등 2인 이상에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증에 각자의 자본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기입찰을 실시한다.

③ 최고거래가격과 차순위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일경에 확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결정일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에게 매각대금 및 지면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반납으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적부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적부등소멸확인서 및 등적부등소멸등기서를 첨부하고, 국민수거처장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법원을 속속히 접수한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권 주체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된등권인신고로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위치인이다. 사업자 등등권인 신고를 마친 위치인이 있을 때에는 그 위치보증금에 매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일반인들의 알현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알현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선합법(신청)과 비치하여 알현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알은 후 입찰하여야 한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명세서에 나오는 입찰조건에 기재된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요인이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단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도 반드시 입찰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거래가격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예외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에 매각기일 전에 매각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용에 공고되는 물건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용공고로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알현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공고매각보전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알현 가능한 정보는 법률정보 제공연도 정하여지 있지 아니한 것만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추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대법원 홈페이지에 신고하신 후 매각결정일 이전에 해당사항의 정정할 수 없으므로, 경신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나 비참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2. 4. 30.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이영복